

발간사



한국대댐회가 댐 및 관련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관리에 따른 기술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되어 국제대댐회의 한국위원회 역할을 수행한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흔히들 나이 40세에 이르면 ‘불혹(不惑)’이라 일컫고 미혹(迷惑)되지 않고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즉, 흔들림 없이 소신껏 나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대댐회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창립 초기의 설립목적에 맞게 소신껏 중심을 잡으며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봅니다.

1994년 발간된 ‘한국대댐회 20년사’를 바탕으로 그 후 약 20년간의 활동 자료와 기록을 찾아내고 수집, 편집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대댐회 40년사’를 발간하는 참 의미는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모습과 좌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라 여기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창립 초기에 비해 개인 및 단체회원의 증가, 국제 대댐회 무대에서의 활동범위 및 위상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 대댐회는 분명 발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유일의 댐 전문단체로서 사명을 바탕으로 양적인 발전을 넘어서 보다 진취적이고 한층 성숙된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대댐회가 고민하고 설계해나가야 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한권의 책자가 단순한 사실의 기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본 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미래의 발전방안 및 새로운 목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한국대댐회의 역사 회고에서부터 자료 제공, 집필 등을 위해 여러모로 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주신 집필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본 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용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분명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한국대댐회의 올바른 역사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2년 11월

(사)한국대댐회 회장 김경호

